

나해·제2274호

연중 제10주일

2024년 6월 9일

춘천교주보



도메니키노

〈에덴동산에서의 추방〉

1625년경, 동판에 유채,
그르노블 박물관, 프랑스

목 차

02 말씀의 향기

어머니와 어느 교우의 편지

03 사제 단상

[가짜 상식 이야기] 악어와 악
어새의 공생...가짜라고 하네요!

04 교구 소식

2024년 제2회 찬미받으소서
학교

05 열린 마당

제단법인 바보의나눔
후원회원 모집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입당송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적 나의 원수, 그들은 비틀거리리라.

제1독서

창세 3,9-15

화답송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해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제2독서

2코린 4,13-5,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복음

마르 3,20-35

영성체송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
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조철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주문진 본당 주임 겸 영동가톨릭사목센터 관장

어머니와 어느 교우의 편지



대만에서 자취 생활을 하며 공부하던 시절, 나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엉망이 되어버린 때가 있었다. 다급했던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다.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 신부를 위해 대만으로 넘어오셨고, 주방도 없는 단칸방에서 나를 위해 손수 식사를 챙겨 주셨다.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공항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두 통의 편지를 건네주셨다. “신부님, 여기 두 개의 편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신부님에게 어머니로서 쓴 편지이고, 다른 하나는 신부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우가 쓴 편지예요. 여기서 읽지 마시고 집에 가서서 읽으세요.”

자취방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라고 적혀 있는 첫 번째 편지 봉투부터 조심스레 열고 읽어 보았다. ‘아들아, 엄마야! 우리 아들 많이 힘들지? 엄마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단다. 나는 네가 공부를 끝마치지 않아도, 훌륭한 사제가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어. 힘들면 언제든지 포기하고 돌아와도 괜찮아. 엄마는 우리 아들이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신부님을 가장 사랑하는 어느 교우가’라고 적혀 있는 또 다른 봉투를 열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아들 신부님, 신부님은 누구보다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제라고 생각해요. 어서 빨리 한국에 돌아오셔서 신자들에게 좋은 말씀도 들려주시고 착한 목자로서 살아가기를 늘 기도드립니다. 신부님 힘내세요!’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사제를 위하는 교우로서, 두 가지 마음을 두 통의 편지로 남겨 주셨다.

오늘 복음에서 성모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다. 그런데 성모님은 ‘나 예수님의 어머니야’라고 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그냥 들어

가셔도 될 법한데, 밖에서 조용히 예수님을 찾으신다. 예수님을 찾아온 성모님의 두 가지 마음을 묵상해 본다. 우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는 ‘아들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있음이 걱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여인으로서의 마리아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가 가까이에서 듣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모님은 아들 예수가 걱정도 되었지만,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방해가 될까 봐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형제들과 밖에 서서 예수님을 찾고 계셨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군중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르 3,34-35).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모님은 당신을 낳아 기르신 어머니이시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 잘 실행한 여인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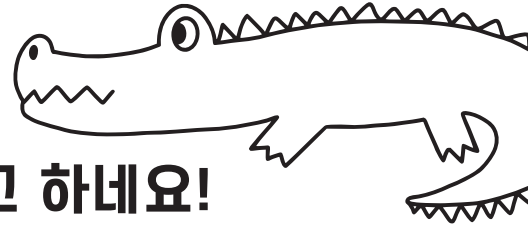
언젠가 미사 중에 “오늘 미사 중에 제 어머니가 함께 미사에 참례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니 신자들은 누가 본당 신부의 어머니일까 두리번거렸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오늘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미사에 오신 여러분이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오늘 미사에도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셨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며 오늘 미사에 나오신 본당의 모든 어르신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고, 나의 어머니이다. 대만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교우가 쓴 편지의 내용처럼 나에게 맡겨진 어머니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하기로 다짐해 본다. 그리고 나 또한 하느님의 뜻을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며 ‘예수님의 형제’라 불릴 수 있는 사제가 되기로 결심해 본다. 

말씀을 통한 체험은 지금도 사랑의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가짜 상식 이야기]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가짜라고 하네요!



이 세상에 많은 상식이 존재하지만, 막상 실제로 따져 보면 가짜라고 정정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허탈해지기도 합니다. 종종 놀라게 되는 가짜 상식들, 이번에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 → 가짜!

악어가 입을 벌리면 악어새가 그 안으로 들어가 이빨 틈의 찌꺼기를 청소해 준다! 이런 식의 악어와 악어새의 아름다운 공생 관계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몇 년 전에 가짜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먼저 악어새로 알려진 '이집트 물떼새'는 작은 벌레, 식물의 열매, 씨앗 등을 주로 먹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식 동물인 악어의 이빨에 낀 고기를 먹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또 악어는 이빨이 손상되면 새 이빨이 돌아나는 동물이라서, 평생 8,000개가 넘는 이빨이 빠졌다 다시 난다고 합니다. 이빨 사이도 워낙 넓어서, 애초에 찌꺼기를 제거해 줄 치과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착각이 일어난 이유는, 기원전 5세기의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행을 다니다 물 밖으로 나와 입을 벌린 채 쉬고 있는 악어와 그 입속을 오가는 새를 보고, 자신의 책 '역사'에 '...벌어진 악어 입속에서 악어새는 거머리들을 먹어 치운다. 이런 관계는 이롭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름난 역사가였던 그의 착각과 상상으로 인해, 이후 수 세기에 걸친 가짜 상식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 하마와 소등쪼기새의 공생 → 공생 + 기생

예전 동물 영상을 보면, '하마'나 '물소' 같은 큰 동물의 등에서 진드기나 벌레를 잡아먹어 준다는 새가 나오곤 합니다. 이 새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소등쪼기새'이며, 노란 부리와 붉은 부리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하마, 물소, 코끼리, 기린, 사슴, 얼룩말 등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큰 포유동물들의 털 사이의 진드기와 벌레를 잡아먹어 주고, 입안도 청소해 줍니다. 또 적들의 접근을 경고해 주는 '보초병' 구실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식 동물은 먹이를 제공하고 새는 귀찮은 벌레를 잡아 주는 유명한 공생 관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소등쪼기새가 피를 마시려고 동물의 상처를 더 크게 벌려 놓거나 해집는 등 더욱 심하게 만드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새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는 동물의 피였고, 동물들이 건강할 때는 얄전히 벌레만 잡아먹다가, 상처가 생기면 오히려 피를 마시고 상처를 파먹는 모습으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나 영양들이 소등쪼기새를 등에서 내쫓는 모습도 여러 차례 발견되었고, 결국 소등쪼기새는 공생을 넘어 오히려 기생 관계일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고 합니다.

튼금없는 동물 이야기이지만, 아름다운 상생의 관계란 걸보기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어느 동물보다 뛰어난 사람인 우리들도, 걸보기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샤워할 때 물 아끼고 샤워시간 줄이기



교구 소식

2024년 제2회 찬미받으소서 학교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을 마치며...

글·사진 / 가정생명환경부

춘천교구는 찬미받으소서 주간에 제2회 2024년 찬미받으소서 학교를 열었습니다. 학교는 4번의 비대면 강좌와 전체 대면 모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210명이 신청하였으며, 매 강좌와 대면 모임에 평균 100명 정도 참여하였습니다.

교구 찬미받으소서 학교의 첫 목적은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멀리 어딘가에 계신 하느님, 세상과 떨어져 홀로 빛나는 하느님이 아니라, 작은 먼지 알갱이에도 당신을 드러내시는 **창조의 하느님**, 우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생명의 하느님**을 만나 우리 삶과 신앙, 믿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앞에 있는 것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찬미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느님께서 나의 창조주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그분에게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나의 형제요 어머니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 없이 증상만을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기후 위기 진단, 환경법, 생태학, 교회 가르침 등 다방면에서 찬미받으소서의 여정을 다루고 7가지 실천 플랫폼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제시하였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 있는 커리큘럼과, 실천적 삶의 제시를 통해 교구민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참소명을 깨닫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 기쁘게 하느님 찬미 여정을 걸어가도록 찬미받으소서 학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창조 시기에 맞춰서 가정생명환경부에서는 작년 '교부들의 이야기'에 이어 교구민들을 위한 '찬미받으소서 토크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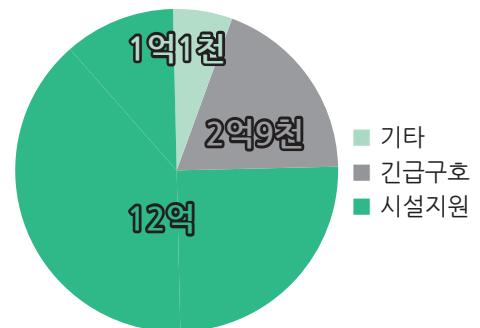
바보의나눔으로 여러분의 나눔을 보내주세요
“서로에게 밥이 되어 주십시오”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은 바보야.”

스스로를 바보라 불렀던 김수환 추기경님.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의 따뜻한 친구였던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랑과 나눔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추기경님 선종 1년 후 설립된 저희는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입니다. 바보의나눔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된 공익법인으로 기부금을 모아 도움이 절실한 곳으로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부자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은 홀로 방치된 아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 당당한 엄마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혼모, 편견에 맞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장애인, 꿈을 이루고 싶은 해외 아동 등 인종, 국가, 종교, 이념을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곳 춘천교구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보의나눔과 춘천교구와의 인연은 2012년을 시작으로 춘천교구사회복지회 차량 지원과 산하 시설(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노숙인 시설 등)의 필요 물품 구매 및 건물 시설 보강 등을 꾸준히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산불과 2020년 폭우 피해, 2022~2023년 산불 등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강원 지역 이재민을 위해 긴급 구호 기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5억 원의 기금을 지원하여 춘천교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2012~2023년 춘천교구 지원금 규모〉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밥’이 되는 기부를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은 이웃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고, 내일을 스스로 살아갈 힘이 됩니다. 바보의나눔으로 보내주신 기부금은 특례기부금(前법정기부금)으로 기부 금액에 따라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 기부(월 1만 원 이상)를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첫 기부 후, 기부자 선물 ‘따뜻한 손수건’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기부문의 02-727-2506~08, 2510 (평일 9:00~18:00)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001-632223 (재)바보의나눔
홈페이지 www.babo.or.kr



〈기부신청 바로가기〉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사제평의회·참사회

6. 11.(화) 14시, 교구청 대회의실

건축위원회

6. 13.(목) 14시, 교구청 대회의실

양양 본당 사목 방문

6. 14.(금)~16.(주일)

견진 성사

양양 본당: 6. 15.(토) 18시

가평 본당 사목 방문

6. 21.(금)~23.(주일)

2024년 제10회 청년도보순례

7. 5.(금)~7.(주일) 2박 3일

주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일정: 속초 교동성당~고성통일전망대(약 56km)

대상: 만 19~39세 청년

참가비: 12만원

신청마감: 6. 16.(주일), 선착순 80명

자신의 배낭을 메고 걷습니다.

자세한 사항 공문 참조

☎ 033-253-6064

렉시오 디비나(성독, 거룩한 독서)

6. 11.(화) 10~16시까지, 가톨릭회관

대상: 한 번이라도 렉시오디비나의 강의를

들으신 분은 모두 초대함

지도: 김택신 신부 / 미사: 15:30

참가비: 1만원(점심포함)

☎ 010-9345-5593

성령쇄신봉사회

6. 14.(금) 19~23시, 운교동소성당

찬양과 치유기도회: 박효심 글라라(춘천교구)

미사: 19:30, 엄기선 베네딕토 신부

주차: 성당 및 운교노인복지센터 앞

☎ 010-2962-4051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신학생 여름 수련회

6. 10.(월)~12.(수) 옥계 성당

군인 신학생 피정

6. 11.(화)~14.(금)

꾸르실료 월례회의

6. 15.(토) 14시, 말당회관

6월 카나 혼인 강좌

6. 15.(토) 18:30, 일동 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부부/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 033-240-6095 가정생활환경부

제54차 정의평화위원회 월미사

6. 17.(월) 19시, 솔을 성당

주례: 권오준 신부 (정평위원장)

강의: 경동현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실장)

주제: 시노달리타스와 정의평화

이벽 요한 세례자 축일 미사

6. 24.(월) 11시, 화현 이벽 성지

10시: 묵주 기도, 자비 기도

오시는길: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447

☎ 031-531-2234

우리 본당의 자랑스런 평신도 찾기

후보자: 본당의 설립, 발전과정에서 남다른 사랑과 봉사의 실천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신 분

추천자: 후보자를 잘 알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사목회

접수기간: 5. 15.~9. 30. / 양식: 본당 사무실

접수처: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033-243-4416, F. 033-253-8586

강원대학교병원 원목실

위치: 어린이병동 지하 1층

☎ 033-258-9487, 010-2690-8790

재속프란치스코 춘천형제회 월례회

매 셋째주 (토) 13시, 말당회관 3층

☎ 010-8392-8972

체나콜로 모임과 월미사

6. 15.(토) 10시, 효자동 성당

미사: 11시, 조영수 마태오 신부

신입 회원 접수 가능

☎ 010-3669-2076

말씀품기 피정

대상: 말씀살기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

1차: 6. 27.(목) 10시~28.(금) 15시

2차: 6. 29.(토) 10시~30.(주일) 15시

3차: 11. 28.(목) 10시~29.(금) 15시

4차: 11. 30.(토) 10시~12. 1.(주일) 15시

강사: 오경택 안셀모, 엄기선 베네딕토 신부

장소: 가톨릭회관 / 차수별 선착순 36명

신청: 본당 사무실, 6월 12일 마감

참가비: 9만원 (1인 1실, 4식)

☎ 033-240-6020

행복한 가정과 부부를 위한 144차 ME 주말

6. 21.(금)~23.(주일), 춘천 가톨릭회관

대상: 결혼 3년 이상 부부, 신부님, 수도자

신청: 김경호 야고보·조정아 헬레나 부부

☎ 010-5579-6826, 010-8242-8018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6. 16.(주일) 14~16시, 퇴계 성당

7. 14.(주일) 14~16시, 7월부터 둘째주 주일

천주교 인권 위원회 위원 차진태 모세

☎ 010-3721-9144 예약 후 정해진 시간에 상담

★ 가톨릭춘천신협 ★
거두리 지점
7월 1일 OPEN!

★ 조합원님의 많은 관심과 ★
성원 부탁드립니다.

☎ 033-255-6742 가톨릭춘천신협

성소모임 / 성소모임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살레시오회	수시(문의바람)	춘천 소양로 수도원	010-7427-4627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서울 자양동 수녀원(건대입구역)	010-7197-1390	한사람은 온세상보다 소중합니다.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6. 15.(토) 14시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중앙산부인과(속초)

산전진찰, 부인과진료, 골다공증 관리
국가암검진(자궁, 유방암)

성인 예방접종, 영양수액

☎ 033-637-9887

김균하 다미아노

타파웨어 춘천 중앙점

무공해 무독성 김치통, 냉장·렌지용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타파웨어

정수기, 혼수용품

중앙시장 제일백화점 2층

☎ 010-9042-3638 김소정 안젤라

타워온누리약국

병·의원처방조제, 반려동물의약품조제판매
개인맞춤영양제(셀로맥스, 셀메드 등)상담
센트럴타워푸르지오 상가 2층2228호

☎ 033-255-3300

김성환 T.아퀴나스·정은지 세실리아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김길영 마르티노

본 당 알 림

6월 하느님 자비의 기도모임

6. 17.(월) 13~16시, 입당동 성당
기도하고 싶은 누구나 / 강의, 성시간, 고해
성사, 미사 / 매월 세번째 월요일

영동지구 폐제 기도 모임

6. 29.(토) 20시, 초당 성당
기도하고 싶은 누구나 / 찬양, 기도, 침묵, 말
씀, 일치, 마음의 평화와 치유
사제, 수도자가 기도 모임에 함께합니다.

양양 물치성당 사무장 모집

사무장 1명 (15개월 계약직, 경력자 우대)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신자
(사무행정, 회계업무, 엑셀, 한글 가능자)
서류: 자필이력서, 본당 주임 신부님 추천서
접수: 메일 bds0007@naver.com 6. 30.까지
☎ 010-4482-5977 문자 접수

인 준 시 설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채용

분야: 전일제 청소년 동반자
서류: 6. 19.(수) 15시까지
면접: 6. 21.(금) 14시
상세내용 홈페이지(www.8181388.co.kr)
☎ 033-818-1389

춘천시립요양원 입소자 및 직원 모집

입소자 (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 급여대상자)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033-261-9658

마리아의 집

미혼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 입소가능
(재)착한목자수녀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입니다. ☎ 033-264-0194

일 반 알 림

2024 한국살레시오청년대회

6. 28.(금)~30.(주일) 대전 살레시오교육사목센터
대상: 가톨릭 청년 누구나
참가비: 일반 8만원, 대학생 7만원
☎ 010-9630-1988 ksyd@sdb.kr

라파엘 성지순례 ☎ 02-778-8565

9. 11. 추석특선 알프스와 중세수도원(545만원)
10. 13. 3대 성모님 발현지 13일 (485만원)
10. 22. 이탈리아아일주 10일 (520만원)
12. 2. 미서부미션 및 과달루페 13일

착한목자수녀회“잠시멈춤”청년기도모임

6. 17.(월) 19:30, 한살의 집 1층(거두리)
대상: 남, 여 청년(미혼)
☎ 010-7197-1390 문의 효주수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갈바리노인복지센터 방문재가 어르신모집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하여가사 및 취사, 말벗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033-644-3477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

1년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가정폭력·성
폭력 등에 관한 위기상담과 긴급구조,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033-1366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노인요양원입소자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분
운영: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 033-458-9422 몬피노인요양원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8. 19.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525만원)
10. 7.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3일 (550만원)
10. 14.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75만원)
10. 23. 발칸3개국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지
11. 21.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지 10일
☎ 010-5235-3533 www.catholictravel.co.kr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8. 24.~25. / 9. 21.~22.
3박 4일: 6. 27.~30. / 7. 18.~21.
8박 9일: 6. 13.~21. / 7. 4.~12.
40일: 10. 4.~11. 12.
장소: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 010-4906-5722, 031-953-6932 신청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8. 6.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45만원
9. 26.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발자취 10일) 440만원
10. 9. 터키, 그리스(사도바오로 발자취 12일) 470만원
10. 22.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30만원
11. 4. 알프스주변 수도원 및 성모성지(KE12일) 530만원
☎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7월 개강, 각 6주)

-영성과 심리의 통합 첫 번째 길 : 최지원 수녀
-구약성경 아카데미: 시편 해설 : 주원준 박사
-로를 읽자! : 김민 신부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 : 박혜원 강사
*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 02-3276-7733 신청 center.jesuits.kr

산티아고 순례길 800km(42일)

9. 19. 599만원(+2000유로) catravel.co.kr
루르드, 파티마 순례 포함
☎ 070-4086-0207 가톨릭 트래블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 tv 274번

평화 장례를 돕는 사람들(춘천)

힘들고 어려운 장례 후불제로 진행
(제휴 장례식장 할인)
묘지관리 · 이장 · 벌초/무엇이든
물어보세요(전국 어디나 가능)
☎ 010-2678-9789 홍성식 토마스

대건 건설·조경·중기

홍천 지역 각종 굴삭기, 덤프 임대
토목·택지·조경 공사·객토
☎ 010-5361-5641
한성근 대건 안드레아

함경도 아바이 젓갈(속초)

한국인의 밥상 KBS 1TV 촬영
가자미식해 촬영지 / 가자미식해,
명란, 창란, 오징어젓갈, 각종 젓갈
☎ 632-6561, 010-3341-0470
양수근 임마누엘·박순옥 임마누엘라

신 영 측 기 사(서울)

측량기, 광파기, GPS
데오도라이트, 레벨
☎ 02-2619-4455
☎ 010-6245-3450
고한용 요셉

스타키보청기
춘천난청센터

청력검사/ 난청상담/ 보청기상담
춘천 이마트 건너편 위치
☎ 033-251-3131
김형근 프란치스코

춘천 장례식장

검안의 상시 대기
교구 협약 특별혜택
☎ 010-4479-4414
이성범 요셉 사무국장
전국장례지도사연합회

산골농장 흑염소 건강원

"청정 양구" 자연 방목 흑염소
"30년 전통"의 농장 직영 건강원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010-6443-4811
신양순 다리아

가람 익스프레스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항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합니다.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김경옥 비르짚다